

<시편 84 편: 성전(기도실)을 공동체적으로 지키기> - Matthew Candler

I. 개관

- A. 전제: (시84편) (계5장) 가운데는 우리 영적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24/7 주야로 기도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1. 주님은 Grandview 도시에서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grand view (큰 그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2. 그분이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의 일부는 은혜 가운데 (속4:6-10) 로 부터 (엡 4:16)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 B. 우리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선교 단체이다. 모든 다양한 것이 이루어져 선교단체를 이룬다. 여러 다양성 가운데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 사역자 뿐만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기도실을 지키는 것으로 초청하셨다. 임무의 부담만이 아니라 축복이 있다. 두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싶다.
1.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2. 이 임무를 공동체적으로 지키는 삶을 어떻게 살아 갈 수 있을까?

II. 첫번째 질문

- A. (계 5:5-10): 죽음을 이기신 어린양
1. 9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노래하고 있다. 이기신 어린양 앞에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지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이기셨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기셨다는 것이다.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취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분의 피로 사람들을 사셨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 구속하신 것이다.
 2.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시리로다.” 구속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피로 우리를 사신 더 큰 이유는,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이다 .
- B.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정체성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인간이라는 것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와 같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뿐만 아니라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섬기는 것 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 C. 이것이 연합의 이유이다 : 이것이 우리를 그의 피로 사신 신부들로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실재적 이유이다. 그분의 피의 능력은 모든 족속, 방언, 백성, 나라를 통일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 D.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의 개인 인종, 민족성, 문화, 배경, 성격, 꿈, 영향, 소명 또는 직업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런 정체성으로 볼 수 있는가?

III. 두번째 질문

제사장의 신분과 영원한 성소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주님은 의도는 무엇일까? 선교기지인 아이합에 함께 사는 사람들로써,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써, 주님의 여러 가지 임무와 소명을 가지고 성소를 지키기 위해 부름 받은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A. 시편 84 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배 성소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임무에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도록 의도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시편 84 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임무에 관한 핵심 아이디어를 기억해야 한다.

1. (출 19:5-6) 국가적 정체성과 부르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 19:5-6)

2. (민 3:11-13) 구별된 전임적 직업의 부르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 3:11-13).

B. B. 주님께서 백성들이 성소를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시게 하는 방법은 그들의 제사장적 정체성(출19:5-6)에 근거해서, 큰 공동체안의 전임적 사역자들을 통해서이다(민 3:11-13).

C. 다른 말로하면, 24시간 기도의 집을 지키는 큰 공동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부분의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체성은 모두가 있는 것이다. 전임으로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은 우리의 역할과 상관없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전임사역자들)이 달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지파들이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게 섬기는 것이다. 레위 지파가 혼자 이를 수 없다. 함께 할 때 할 수 있다. 나머지 11지파가 제사장의 국가적인 부르심을 도와주고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

1. 이스라엘의 경우, 전 국가는 유월절 양의 피에 의해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이 나라의 전체적인 제사장적 부르심의 정체성과 소명의 표현을 하기 위해 소규모 그룹이 전임적 직업인 제사장으로 분리되었다.

2. 주님은 더 큰 공동체가 없이 작은 숫자의 전임자들에게 성전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다.

D. 더 나아가, 주님은 더 큰 공동체가 단순히 성소에 재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출 23:14; 신 16:16)’ 의무가 있었다. 즉 전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동일한 제사장적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1.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많은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장인, 목자,

교사등 여러 직업과 역할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적 나라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이 하는 일을 일로 보지 않고 예배로 보았다. 무슨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

2.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이 어떻게 성전의 강화하고 섬기는지 알았고, 그들의 직업이 성전에서의 참여를 예외시키지 않는 것도 알았다.
3. 성전은 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소명"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과 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지금 나는 20년동안 아이합에서 전임 선교사로 있었고,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씨름이 있다. 내 부르심이 중보기도 선교사로 있어야 하는지? 생각한다. 내가 볼 때 일터에 일하는 사람은 기도실에 더 있고 싶어한다. 나는 나의 집을 고치는 형제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 가운데 의사들, 차를 고치는 사람, 파이프 고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훌륭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은 전체 큰 공동체가 전임으로 섬기는 사람을 재정으로 돕는 역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사장적 부르심을 모두 다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E. 이 제사장적 직업 과 비 직업 제사장적 정체성의 축복과 부담은 시편 84 에 잘 나와 있다.

IV.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 84:1-12)

A. 시 84 편 스토리: 두개의 그룹

1.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은 레위인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살았다. 예루살렘 가까이 살지 않았다. 순례자 였다. 예루살렘 성전을 항상 사모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다. 4 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 새끼들을 키우는 새 집들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는 그 부르심이 아니라고 한다. 문을 지키고 노래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어떤 집안에 태어난 것으로 어디에서 사는 것이 정해졌다. 그래서, 갈망하는 것이다. 노래하는 자와 성전을 지키는 자를 부러워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모든 남성에게 필요한 세 번 외에 매년(일주일 기간) 두 번 성지(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했다. 그는 성소 근처에 거주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특권을 받은 전임 직업 문지기나 노래하는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성소에서 전임 제사장으로 있지 않았다(3-4 절).

2. 만약 이 시편 기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그는 오히려 지속적인 순례를 하는 공동체의 사람이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들 중 한 명이 되었을 것이다.

나머지 11지파의 입장을 표현한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오고, 예배하러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경계에 살고 있었기에, 1년에 5번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도와줄 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했다. 200km 떨어진 곳을 일년에 5번 섬겨야 했다. 편도 2주 정도, 왕복 한달을 걸어야 했을 것이다. 나귀를 탔을 수도 있다. 여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고, 위협하는 맹수들도 있었을 것이다. 삶에 아이들도 아프고, 여러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눈물이 있는 여정이었을 것이다.

B. B. 우리 맥락에서 전임 선교사(직업)과 비 전임 선교사(공동체) 모두 이러한 현실과 깊이 씨름하고 있다. 각자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다양한 부담을 경험하고, 이것이 나의 부르심인가라는 의문을 품는 경향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인가? 아닌가?

1. 직업 레위인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사회에서 일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당신은 내가 여기서 어떤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한다. 전임 선교사가 아닌,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이 마켓 플레이스에서 일하는 것이 맞는가? 항상 중보기도 선교사로 살고 싶은데...?' 중보기도 선교사는 반대의 씨름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그룹이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축복이 있다. 많은 친구들이 떠났고 새로운 사람들도 왔다. 모든 사람들이 씨름이 있고 부담이 있지만, 축복이 있다는 것이다. 역할은 비록 다르지만, 같은 부르심이다. 서로의 다른 고충을 이해할 수 있다. 성전의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보라. 빵만 굽는 사람, 불만 지피는 사람, 그릇만 굽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춤을 추는 자였지만, 삶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삶이 쉬운것만은 아니다. 반대로 일터에 있는 사람들, 일주일에 몇번을 억지로 나와야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세번 나오는데도 의지와 힘이 필요하다.

2.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문제가 있고,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다시한번 영광스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항상 남의 떡이 더 커보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질문의 해답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다. 부르심과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고, 나 혼자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간다. 서로 인정하고 이해할 때 이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갈망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고라가 일년에 5번 걸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라. 어떤 사람이 두세번 기도실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서로 이루게 될 때, 시 84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선하시고, 축복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애쓰는 것과 그 수고를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전임으로 섬기는 것이 더 낫거나 그것만이 축복 받은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면서 성전을 섬기는 것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체험하고,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 C. C.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우리는 우리의 깨짐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서 우리의 가치(정체성, 성공의 정의)를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임 선교사와 비선교사가 모두 똑같은 비난을 받고 전투를 벌인다. 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무도 모른다. 나는 혼자이고, 오히려 다른 쪽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1. 아마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많이 싸우는 이유는 이것이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이며, 정체성 문제는 직업적 현실(선교사나 비선교사)로는 결코 대답되지 않을 것이다.
 2. 어린양의 피는 서로에 대한 우리의 유대가 우리의 역할과 기능에 위해서인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공통된 정체성과 제사장적 부르심의 목적에만 적용될 것이다 (계 5:9-10).

V. 시 84 편의 초청과 약속

- A. 1 절: 우리는 성소를 지키기 위한 이 명령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제사장적인 정체성과 공동체로서의 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주님의 갈망과 같은 열정이 우리안에도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 B. 4-5 절: 두 그룹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있는가?
1. 4 절: 주님의 궁전 안에서 우리에게 가족과 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할 것인가?
 2. 5 절: 연합된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는 신뢰할 것인가?
- C. 6 절: 고통스럽고 값비싼 순례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비를 내려 주심)을 믿을 것인가?
- D. 7 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것인가?
- E. 8-9 절: 리더십과 사역자들,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시도록 기도할 것인가?
- F. 10 절: 우리의 제사장적 부르심에서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우리는 믿을 것인가?
- G. 11 절: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해와 방패로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으로 신뢰할 것인가? 우리가 전임적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것을 주시는 분으로 신뢰할 것인가?